

카자흐스탄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2

카자흐스탄

I. 일반개황

면적	2,717천 km ²	GDP	1,301억 달러(2008년)
인구	15.8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8,234달러(2008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Tenge
대외정책	친러시아, 대서방 우호관계 유지	환율(달러당, 연중)	120.30(2008년)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9위의 영토대국으로 다민족, 다종교 국가이며,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금, 구리, 철광석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구소련 시절 주요 곡물 및 광물 생산기지였던 동국은 1991년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외 개방 개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석유·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증가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중국 및 서방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전방위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9.6	9.7	10.6	8.5	3.2
재정수지 / GDP	-0.3	0.6	0.8	-1.7	-2.1
소비자물가상승률	6.9	7.6	8.6	10.8	17.0

자료: IFS 및 EIU

□ 금융시장 불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성장 둔화세 지속

- 동국 경제는 2007년까지는 유가 상승과 에너지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수년간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3.2%의 성장에 그침.
- 2009년에도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지속,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어 0.4%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됨.

□ 2008년 4/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세 지속

- 2008년 소비자물가는 2007년말 부터 지속된 국제 식료품 가격의 상승, 재정 지출 확대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연평균 17%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08년 4/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세로 돌아섰으며, 2009년에도 통화공급량 축소, 내수 감소, 국제 상품가 하락 등으로 인해 둔화세가 지속되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부문 수출 수입(收入)의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폭 소폭 확대 전망

- 2008년 재정수지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 석유·가스 분야에 대한 정부지분 확대 등으로 GDP의 2.1% 수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가 약세로 인한 석유 수출 수입(收入) 감소,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법인세 인하 조치 등으로 세수(稅收)가 감소되어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3.6% 수준으로 전년 대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 카자흐스탄의 법인세율은 2009. 1. 1부터 기존 30%에서 20%로 인하되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석유·가스 등 에너지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 FDI, 정부 세입(歲入) 등 경제 전반이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 2009년 3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산업다각화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산업다각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성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 석유·가스 부문 비중 : GDP의 30%, 총수출의 59%, 정부 세입의 약 30%

□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자본재, 시설재를 수입에 의존

-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다각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자본재, 소비재 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민감

- 동국은 국내 자본축적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금을 주로 해외차입과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의존해 온 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해외차입이 곤란해짐에 따라 은행들이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잠재력 및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 보유

- 동국은 석유·가스를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석탄, 철, 우라늄, 크롬, 아연 등)이 매우 풍부하며, 대규모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으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 석유: 매장량(398억 배럴) 세계 9위, 생산량(149만 b/d, '07) 세계 18위
- * 천연가스: 매장량(3조 m³) 세계 11위, 생산량(273억 m³) 세계 28위
- * 석탄: 매장량(345억 톤) 세계 8위
- * 우라늄: 매장량 세계 2위
- * 크롬: 구소련 지역 매장량의 90% 보유
- * 납, 텅스텐, 구리, 아연: 구소련 지역 매장량의 50% 보유

- Tengiz 유전(美 Chevron 주도), Karachaganak 유전을 비롯하여 아직 생산이 개시되지 못한 동국 최대의 Kashagan 유전(伊 Eni 주도)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부문의 성장잠재력은 여전히 높음.

□ 경제위기 대응프로그램 시행 중이나 효과여부는 미지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2010 Action Plan을 수립, 총 약 2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중 약 40%인 80억 달러는 국부기금(National Welfare Fund)에서 조달

- * National Welfare Fund 현황 : 2008년 12월 275억 달러 → 2009년 4월말 225억 달러 (50억 달러 감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환보유고 감소가 우려되고 자국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2009년 2월 자국통화가치 하락을 용인함에 따라 텡게화가 달러화 대비 약 19% 평가절하됨. 그러나, 금번 조치로 은행들의 대외채무 상환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옴.

-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재할인율(refinancing rate)를 50bp 인하하여 9.5%로 낮추었으며, 지급준비율도 인하

- 정부의 이러한 경제위기 대응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며, 국제유가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은행 국유화 조치 단행

- 2008년 11월, 4대 상업은행(BTA bank, Alliance bank, Kazkommertsbank, Halyk bank)과의 자본금 증액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09. 2월 정부는 최대 민간은행 BTA bank(지분 78.14%)과 4위 은행 Alliance bank(76%)를 국유화함.
- 정부의 국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9. 3월 BTA bank와 Alliance bank가 일부 채무에 대한 상환을 불이행하고, 현재 채권자들과 채무재조정 중에 있는 등 은행산업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 상 수 지	335	-1,056	-1,999	-7,333	6,978
경상수지/GDP(%)	0.8	-1.8	-2.5	-7.1	5.4
상 품 수 지	6,785	10,322	14,642	15,091	33,519
(수 출)	(20,603)	(28,301)	(38,762)	(48,351)	(71,971)
(수 입)	(13,818)	(17,979)	(24,120)	(33,260)	(38,452)
외 환 보 유 액(금 제외)	8,472	6,083	17,750	15,775	17,870
총 외 채 잔 액	32,815	43,378	74,148	96,927	107,856
총외채잔액/GDP(%)	76.0	75.3	91.1	93.7	82.9
D . S . R . (%)	37.8	42.0	33.6	38.9	33.8

자료: IFS, EIU

□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경상수지 적자 전환 예상

- 2008년도 경상수지는 3/4분기 까지의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전년대비 약 120% 증가한 335억 달러의 대폭 흑자를 시현함으로써 약 70억 달러(GDP의 5.4%)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9년에는 내수 침체와 텡게화(Tenge) 평가절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유가 약세 지속으로 인해 수출이 대폭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정부가 2009. 2월초, 외환보유고 감소를 막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국통화 평가절하 조치를 취함에 따라 텡게화(Tenge) 가치가 2008년 평균 대비 약 19% 하락함.

□ 국제유가 약세 지속 등 대외여건 악화로 총수출이 크게 감소될 전망

-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0%의 수출증가율을 보였으나, 2009년에는 유가 등 국제 에너지가격의 약세 지속으로 인해 총수출이 전년대비 약 38%의 대폭적인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석유 수출 수입 및 FDI 감소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카자흐스탄의 외환보유액은 석유 수출수입 증대, FDI 유입 지속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말 85억 달러에서 2008년말 179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

* FDI 유입(2005-2008년) : 330억 달러(2005년 20억 달러, 2006년 62억 달러, 2007년 103억 달러, 2008년 145억 달러)

- 그러나, 2009년에는 석유 수출 수입이 감소되고 대외여건 악화 및 카자흐스탄 정부의 외환통제 가능성 우려로 FDI 유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환보유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2009. 4월말 기준) : 174억 달러

** 카자흐스탄 의회는 2009. 3. 25자로 비상시 일시적으로 수출대금의 매각을 강제하고 해외 외환송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외환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예비승인함.

□ 민간부문(특히 은행부문)의 해외차입 증가로 외채 크게 증가

- 카자흐스탄의 외채규모는 은행 등 민간부문의 해외차입 급증으로 인해 2005년 434억 달러에서 2008년 1,078억 달러로 최근 3년간 약 150% 증가됨.

- * 은행부문 외채 : 2005년 153억 달러 → 2008년 392억 달러 (156% 증가)
기타 민간부문 외채 : 2005년 265억 달러 → 2008년 669억 달러 (152% 증가)

- 2008년말 총외채잔액이 1,078억 달러로 GDP의 83%에 달하나, 이중 메이저 석유기업(ChevronTexaco, BG, Eni 등)의 자회사앞 대여금 369억 달러를 제외할 경우 외채잔액은 709억 달러(GDP의 약 54%) 수준임.
- 동국 외채의 대부분은 민간채무(은행 부문 36.4%, 기타 민간부분 62.1%)로 정부 부문의 외채는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함.
- 그러나, 2009년에는 해외차입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만기도래 외채의 상환으로 인해 외채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수준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본지사간 대여금 및 은행의 해외차입금 상환부담 증가로 인해 D.S.R.은 매년 30-4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왔으며, 2009년에도 수출 감소로 인해 D.S.R.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중심의 독재체제 지속

- 1991년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 이후 지난 17년간 장기 집권해 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차례 개헌을 통해 사실상 영구집권의 길을 열었으며, 2005.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였음. 또한 2007. 8월 실시된 조기총선에서는 여당(Nur Otan당)이 88.1%의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모든 의석을 독점하게 되었음.

□ 최근의 경제불안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 지속 예상

-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일부 반대파 정당들이 내각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항할 정도의 세력은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집권세력내 권력집중 방지를 위해 수시로 개각을 실시하고 언론도 적절히 통제하고 있어 향후 동국은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나, 타 강대국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하는 전방위 외교 기조 유지

- 최대 교역국(2007년 기준 총수출의 9.8%, 총수입의 35.5%)이자, 원유 주요 수출루트인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원유 수출루트 다양화를 위해 에너지부분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추세임.
 - * 2006년 카자흐스탄과 중국을 잇는 Atasu-Alashankou송유관(총 길이 960km) 건설이 완공된 이후 동 송유관을 통해 연간 약 4백만톤의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
-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화물의 자국영토 통과를 허용하는 등 에너지부분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미국도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노력 및 세계경제 편입 지속 추진

-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2010년 의장국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WTO에의 정식 가입도 추진중임.
- 또한, CIS,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등 역내 안보 및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경제성장 지속과 국민 소득수준 향상으로 사회불안요인은 크지 않음

- 오랜 독재체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정부 지지도가 높은 편임.
-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공공부문에 대한 대량 해고 및 신규채용 중단으로 실업자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연도별 실업률 추이 : 2007년 7.3% → 2008년 6.6% → 2009년 7.7%(예상)

- 다민족(카자흐계, 러시아계 등), 다종교(이슬람 수니파, 러시아정교 등) 사회이나, 민족간 갈등 및 종교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정부는 다수의 러시아계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1999. 12월 수도를 남부의 알마티에서 러시아에 인접한 북부지역의 아스타나로 이전한 것도 러시아계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용평가기관 투자적격등급 유지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Fitch사는 동국의 장기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한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나, Moody's 및 S&P는 등급을 조정하지 않음.

□ 최근의 국영상업은행 채무재조정과 관련, 신용평가기관간 동국 등급에 대한 상반된 입장 견지

- Moody's는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의 불안정 지속 및 유가 약세를 이유로 등급전망(outlook)을 종전 stable에서 negative로 변경하였음.
- 그러나, S&P는 정부가 동 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정부의 잠재적 채무가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등급전망(outlook)을 종전 negative에서 stable로 변경함.

< 주요 신용평가기관별 등급 변동 추이 >

- Moody's : Baa3('02. 9) → Baa2(stable, '06. 6) → Baa2(negative, '09. 5)
- S&P : BBB-(stable, '07. 10) → BBB-(negative, '08. 4) → BBB-(stable, '09. 5)
- Fitch : BBB-('04. 10) → BBB('06. 12) → BBB-(negative, '08. 11)

< 주요 ECA의 인수태도 >

- US EXIM : 중단기 조건부 인수 가능
- Atradius : 단기인수 가능, 한도적용 없음.
-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Hermes :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외채상환 태도 및 능력

정부채무는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민간채무는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2009년 중 상환해야하는 대외채무가 총 240억 달러로 외환보유액(179억 달러)을 초과하며, 이중 정부채무는 2억 달러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민간채무(은행 128억 달러, 기업 110억 달러)임.
- 2009년 상환예정인 민간채무 238억 달러중 외국투자기업의 본지점간 대출분(50억 달러)을 제외할 경우 카자흐스탄 국내기업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188억 달러이며, 이중 128억 달러가 은행부문의 외채로 은행들의 대외채무 상환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일부 국영상업은행 채무재조정 협상 진행중

- 2009. 3월 이후 카자흐스탄 최대 상업은행인 BTA Bank와 4위 은행인 Alliance Bank가 일부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채권자들과 채무재조정협상을 진행중임.

* 2009년중 상환예정액 : BTA bank 30억 달러, Alliance bank 5.7억 달러

** BTA Bank는 건설, 주택 분야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카자흐스탄 최대의 상업은행으로, 카자흐스탄 주택가격이 2007년 하반기 이후 2008년 7월까지 1년만에 약 60% 급락함에 따라 큰 어려움에 직면

- BTA Bank와 Allianc Bank는 금년 2월 정부가 지분 70% 이상을 매입함으로써 국유화되었으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동 은행의 채무를 국가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은행에 대해 추가적인 자금지원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교역규모(2008년) : 7.0억 달러(수출 3.5억 달러, 수입 3.5억 달러)

- 2008년중 자동차 수출의 부진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36.3% 감소함에 따라 교역량이 전년대비 약 13.1% 감소
- 주요 수출품은 합성수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합금철, 고철, 철강판 등임.

□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2009. 3월)

-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FDI)는 총 379건, 10.1억 달러 규모이며, 건설업 및 광업이 약 50% 차지

- 2009. 5월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향후 에너지 부문 등 경제 전반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V. 종합의견

- 카자흐스탄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 하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공공부문 대량 해고 및 신규채용 중단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될 것으로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아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미국 등과의 협력관계도 강화되고 있음.

- 그러나,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국 경제는 2007년까지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연평균 9%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도 국제유가 약세 지속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해외차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국 은행들이 만기도래 대외채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은행산업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동국 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선임조사역 안상훈(☎02-3779-6650)

E-mail : ash1199@koreaexim.go.kr